

출산 후 1년 이내 초산모의 모성역할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송 주 은¹ · 고 정 미²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아주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¹, 청주대학교 간호학과²

Influencing Factors on Maternal Role Adjustment among the Primipara Women in the First Year after Childbirth

Ju-Eun Song¹ · Jung Mi Ko²

*College of Nursing,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Ajou University¹
Department of Nursing, Chung Ju University²*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maternal role adjustment among the primiparous women in the first year after childbirth.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210 healthy primiparous women who have delivered at one of four women's health hospitals and revisited the out-patient department for the routine check-up and baby's vaccination during the first year after childbirth. Data were collected by a self-report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maternal role adjustment, spousal rearing support, childcare stress, and postpartum depression.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 Win 18.0 program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 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maternal role adjustmen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pousal rearing support ($r=.649, p<.001$), childcare stress ($r=-.596, p<.001$), postpartum depression ($r=-.569, p<.001$), and subjective health condition ($r=.204, p=.003$).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maternal role adjustment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spousal rearing support ($t=6.542, p<.001$), childcare stress ($t=-3.268, p=.001$), and postpartum depression ($t=-2.238, p=.018$).

Conclusion: From thes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the nursing intervention for enhancing spousal support in childcare and decreasing the childcare stress and depression should be developed for improving maternal role adjustment in the first time mother, especially within one year after childbirth.

Key Words: maternal behavior, adaptation, primiparity, mother

*본 연구는 2015년 아주대학교 대학원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2015 grant from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교신저자: 고정미,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보건의료대학 간호학과

전화번호: 041-229-7851, 팩스번호: 041-229-8969, E-mail: khc9707@cju.ac.kr

접수일자: 2016년 7월 26일, 수정일자: 2016년 9월 9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9월 10일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첫 출산을 통하여 새롭게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습득하고, 모성역할을 수행하며 적응해야 하는 초산모에게 출산은 매우 중요한 삶의 전환 경험이다(Song & Park, 2010). 특별히 임신, 출산과 산후시기에 이르는 모성이행기(transition to motherhood)는 신체적, 심리적, 관계적, 행동적 재응답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발달기적 전환과정이자(Mercer, 2004, Song et al., 2015c), 여성의 전 생애주기에서 가장 역동적인 과정으로 간주된다(Meleis et al., 2000). 모성이행기 동안 여성은 성취감과 행복감 등의 긍정적 경험과 함께, 스트레스, 불안, 분노, 우울 등의 다양한 부정적 경험도 같이 하게 되므로(Mercer & Walker, 2006), 어머니로서의 전환과 적응과정은 흔히 위기의 시간으로 간주된다(Song et al., 2015b; Song & Park, 2010).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과 함께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임신과 출산을 겪는 초산모들이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경험이 부족하고 역할 모델을 볼 수도 없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Kim, 2008). 이는 어머니로의 전환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초산모의 모성역할적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초산모의 모성역할적응 과정의 부정적인 경험은 둘째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주어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Seo, 2011), 산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Song et al., 2015b). 따라서 모성역할적응은 간호의 매우 중요한 관심현상이며, 국내외 적으로 꾸준히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Mercer & Walker, 2006; Song & Ahn, 2013; Song et al., 2015a; Song et al., 2015b; Song et al., 2015c)

모성역할적응은 일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Mercer (1985)는 산모의 33%가 산후 2주, 49%가 산후 2개월, 64%가 출산 후 4개월, 그리고 85%가 출산 후 9개월 정도에 어머니 역할을 획득한다고 보고하였고, 이후에 다시 모성역할이 어느 한 시기에 획득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출산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므로 모성역할 획득의 개념보다는 어머니 됨(becoming a mother)의 용어가 보다 적절하다고 설명하였다(Mercer, 2004). 또한 Barlow와 Cairns (1997)도 모성전환과 적응은 출산 후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특별히 출산 후 1년을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보았다. 따라서 산모의 모성역할적응 연구에서 출산 후 1년까지의 시점을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산육기에 국한된 경우가 많다(Chae, 2005; Chae et al., 2011; Lee, 2015).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초산모들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으로 퇴원하여 평균 2~3주를 제한적인 아기돌보기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가, 산후조리원을 퇴원한 이후에 적극적인 모성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며(Song & Park, 2010), 산후조리원을 나온 이후에 또 다시 산후도우미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Song et al., 2015a). 따라서 이러한 산육기에 파악한 모성역할적응 연구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보며 산후 1년까지의 초산모로 연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성역할적응은 심리적, 관계적, 행동적, 인지적 차원에서 어머니로서의 다양한 적응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Song & Ahn, 2013), 선행연구를 보면 모성역할적응의 일부 속성인 모성정체성, 양육자신감, 모애착 등으로 주로 연구가 되었으며, 모성역할적응이라는 통합적 개념으로 연구가 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산육기 산모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산후우울과 모성역할적응 간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Chae, 2005; Yoo, 2008), 모애착과 가족적응 유연성이 산육기 산모의 모성역할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연구(Lee, 2015),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인지, 모유수유 경험과 출산 후 2년 이내 어머니의 모성역할적응 간의 관련성(Ahn & Kim, 2015) 등의 연구만이 모성역할적응의 통합된 개념을 종속변수

로 활용한 연구이다. 그 외에 다수의 연구는 모성정체감, 양육자신감이나 양육효능감 등과 같은 변수를 모성역할적응을 대표하는 종속변수로서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Song et al., 2015b; Song & Ahn, 2013). 그러나 모성역할적응이 위의 변수를 포괄하는 통합적 개념이므로, 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배우자 양육지지(Lee, 2013; Jung & Kim, 2014), 양육스트레스(Kwon et al., 2006; Chae et al., 2011), 산후우울(Yeo, 2006; Song, 2009b; Jung & Kim, 2014)이나 건강상태(Jung & Kim, 2014) 등과 관련된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선행연구에서 배우자 지지는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산후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Lee, 1995; Lee, 2013; Jung & Kim, 2014) 모성정체감을 높이고 모성역할 긴장을 낮추는(Ko, 1998) 등 모성역할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초산모가 인지한 남편의 지지는 산후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Kim et al., 2005). 최근에 남편이 직장에서 양육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회가 많아지고, 남편의 육아참여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모성역할적응에 대한 배우자 양육지지의 영향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모성역할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양육스트레스도 모성역할적응의 중요한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설명되고 있다(Kwon et al., 2006 ; Ahn & Kim, 2015; Um, 2014).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양육 스타일이 부정적이고 자아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Um, 2014),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로서의 자기 효능감 뿐 아니라 양육 방법에도 영향을 주어 모성역할적응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가 산육기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산모를 대상으로 할 때에도 모성역할적응의 의미있는 영향요인인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산후우울은 모성역할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되며(Chae, 2005), 산후 6개월 미만의 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Yeo, 2006)에서도 산후우울은 산모 스스로가 자신을 어머니로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모성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모성적응을 어렵게 하므로, 산후 간호중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독립변수로서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는 신생아 돌보기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서 모성역할의 수행과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설명되므로(Song, 2009a; Jung & Kim, 2014; Ahn & Kim, 2015), 본 연구에서 모성역할적응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주요 변수들이 모성역할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함에 있어, 모성역할수행이나 적응 관련 여러 선행연구에서 조사되고 있는 일반적 특성인 연령, 교육정도, 경제상태 그리고 가족형태, 직업유무(Chung & Joung, 2011), 종교유무(Jung & Kim, 2014; Chae, 2005)와, 산과적 요인인 산전교실 참여유무(Lee, 2015)와 분만방법(Chung & Joung, 2011), 계획임신여부(Kim & Tak, 2015), 건강문제 유무와 아기연령(Ahn & Kim, 2015), 산후조리원 이용여부(Song & Park, 2010)와 기타 관련 요인으로 아기성별(Lee, 2015), 조력자 유무(Lee, 1995)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초산모를 대상으로 모성역할적응 정도를 측정하고, 이의 영향요인으로서 배우자 양육지지, 양육스트레스, 산후우울과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주요 독립변수들과 함께, 단변량 분석에서 모성역할적응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된 일반적, 산과적 특성들을 함께 포함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모성역할적응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출산 후 1년 이내 초산모의 모성역할적응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산모의 배우자 양육지지, 양육스트레스, 산후우울, 주관적 건강상태와 모성역할적응 정도를 파악

한다.

둘째, 초산모의 배우자 양육지지, 양육스트레스, 산후우울, 주관적 건강상태와 모성역할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성역할적응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초산모의 모성역할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속한 초산모의 모성역할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5년 8월부터 10월 까지 경기 및 충청지역에 소재한 4개의 여성전문병원에서 임신 37주 이후에 2,500 gm 이상의 건강한 신생아를 출산하고, 산후검진을 위해 여성전문병원 외래를 재방문하거나, 자녀의 예방접종을 위해 소아과 외래를 방문한 초산모 중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212명을 임의표집 하였다. 초산모 중에서 쌍둥이 아기를 출산하였거나, 아기가 현재 입원 중인 초산모는 모성역할적응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총 212명 중 설문지 응답이 불충분한 2명의 자료가 제외되어서, 최종 210명이 연구대상자로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의 적절성평가를 위하여 G*power 3.1.2 program (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을 이용하여 사후 검정력 분석을 한 결과, 유의수준 $\alpha=0.05$, 회귀분석을 위한 중간효과 크기 $f^2=0.15$ 와 본 연구에서 주요 독립변수 4개와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하게 설명된 변수를 가변수화 한 10개의 변수를 포함하여, 총 14개 독립변수일 때, 본 연구

의 표본수 210명에서 검정력은 96.8%인 것으로 설명되었다.

3. 연구도구

1) 모성역할적응

모성역할적응은 Sheehan (1981)에 의해 개발된 모성역할적응 측정도구를 Chae (2005)가 번안,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여성으로서의 자아인식 15문항과 모성으로서의 역할인식 20문항의 총 35문항, 4점 Likert 척도(1~4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초산모의 모성역할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6$ 이었다.

2) 배우자 양육지지

배우자 양육지지는 Abidin (1988)이 개발한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PAI) 도구를 Shin (1997)이 번안,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4개 문항, 5점 Likert 척도(1~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초산모가 인지한 배우자의 양육에 대한 지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4$ 이었다.

3)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Kim과 Kang (1997)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ventory (PSI)를 Kim (200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의 3개 하부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에서 어린 영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하부척도만을 사용하였다(Son, 2012). 본 도구는 총 12문항, 5점 Likert 척도(1~5점)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초산모가 인지한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 이었다.

4) 산후우울

산후우울은 Cox, Holden과 Sagovsky (1987)의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을 Kim (2006)이 한국형 도구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개 문항, 4점 Likert 척도(0~3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초산모의 산후우울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5)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는 Stewart 등(1998)이 개발한 Short Form Health Survey를 Son 등(2009)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묻는 1개 문항에 대해 '전혀 건강하지 않다고 느낀다(0점)'부터 '최상의 건강상태라고 느낀다(10점)'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0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초산모가 스스로 인지한 주관적 건강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비록 한 개 문항이긴 하나, 주관적인 느낌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있는 도구로서 설명되며, 산모 대상의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다(Chae et al., 2014; Song et al., 2014).

6)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연령, 가족형태, 교육정도, 종교유무, 직업유무, 경제상태, 아기연령, 아기성별, 분만방법, 산후조리원 이용유무, 건강문제유무, 계획임신여부, 산전교실 참여여부, 조력자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15년 8월부터 10월 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자료수집 전 A의료원 내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진행에 대한 협조가 가능한 경기와 출납 지

역에 소재한 4개 산부인과 전문병원 간호부의 허락을 받았다. 설문조사는 산부인과 외래와 소아과 예방 접종실에 내원한 산모 중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절차, 소요시간과 참여보상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등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할 경우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서면동의 면제로서 기관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진행을 승인받았으며, 연구참여에 대한 설명문에 이러한 내용 모두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진료대기 시간을 활용하여 훈련된 연구원 2인이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원에게 자료수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문항과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대상자 접근에 대한 간단한 훈련과정을 거침으로서 자료 수집절차 상의 오차를 최소화시키고, 자료수집자 간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20분 내외이었으며, 모든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이 완료된 후 바로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아기물티슈를 설문조사 사례품으로 지급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하였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연구변수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연구대상자의 모성역할적응과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성역할적응의 차이는 independent sample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한 후, Scheffe 사후검정으로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 4) 모성역할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료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 적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분포

연구대상군의 연령 평균은 30.78세(±4.03)이었고,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193명(91.9%)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교육정도는 대졸이상이 146명(69.5%)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은 없는 경우가 124명(59.0%)이었고, 경제상태는 월수입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114명(54.3%)으로 과반수이상이었으며, 종교는 없는 경우가 111명(52.9%)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기의 평균연령은 5.51개월(±3.35)이었고, 남아(101명, 48.1%)와 여아(109명, 51.9%)의 비율은 유사하였다. 137명(65.2%)의 초산모가 질분만으로 출산하였고,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한 경우가 146명(69.5%)이었으며, 현재 건강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85명(88.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번 임신을 계획한 경우가 129명(61.4%)이었고, 이번 임신동안 산전교실에 참여한 경우가 97명(46.2%)이었으며, 현재 양육조력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86명(88.6%)이었다(Table 2).

2. 모성역할적응과 주요 독립변수의 점수 분포

본 연구의 모성역할적응 점수는 총점 140점 만점에 95.73점(±11.63)이며, 문항평균으로 하였을 때는 4점 만점에 2.73점(±0.33)이었다. 또한 독립변수 중에

서 배우자 양육지지의 평균점수는 70점 만점에 51.49점(±9.74), 양육스트레스의 평균점수는 60점 만점에 33.09점(±8.68), 산후우울은 30점 만점에 8.1점(±5.30)이었다. 또한 산모가 인지한 주관적 건강상태는 10점 만점에 6.51점(±2.18)이었다(Table 1).

3. 모성역할적응과 주요 독립변수와의 상관관계

초산모의 모성역할적응과 주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 양육지지가 클수록($r=.649, p<.001$),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r=-.596, p<.001$), 산후우울 정도가 낮을수록($r=-.569, p<.001$), 산모가 인지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r=.204, p=.003$) 모성역할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성역할적응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성역할적응의 점수를 분석한 결과, 교육정도, 경제상태, 종교유무, 아기연령, 임신계획여부와 임부의 산전교실참여여부, 조력자 유무에 따라 모성역할적응 점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육정도에서는 대졸이상이 고졸이하의 초산모보다($t=-4.423, p<.001$), 종교가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t=-2.138, p=.034$), 임신을 계획한 경우가 계획하지 않은 경우보다($t=-3.507, p=.001$), 산전에 임부교실에 참여한 경우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t=-2.691, p=.008$), 그리고, 산후 조력자가 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tudy Variables

Study variables	Possible range	Mean±SD	Min	Max
N=210				
Dependent variables				
Maternal role adjustment	35~140	95.73±11.63	55	122
Independent variables				
Spousal rearing support	14~70	51.49±9.74	25	70
Childcare stress	12~60	33.09±8.68	12	56
Postpartum depression	0~30	8.1±5.30	0	26
Subjective health condition	0~10	6.51±2.18	0	10

고 응답한 경우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보다($t=-13.979$, $p<.001$) 모성역할적응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Sheffe 사후검정을 통해서 그룹 간 차이를 분석했을 때, 경제상태에서는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200만원 미만'이거나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F=6.382$, $p=.002$), 그리고 아기연령에서는 '생후 3개월 이하'와,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이하'의 아기를 가진 경우가, '생후 7개월에서 9개월 이하'의 아기를 가진 경우보다($F=5.507$, $p=.001$) 모성역할적응 정도가 높았다(Table 2).

월 이하'의 아기를 가진 경우보다($F=5.507$, $p=.001$) 모성역할적응 정도가 높았다(Table 2).

5. 초산모의 모성역할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산모의 모성역할적응 영향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0.357~0.909로

Table 2. Differences in Maternal Role Adjustm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 or F	p (Scheffe)
Demographic factors					
Age (year)	<30	78 (37.1)	95.46±13.33	-0.245	.807
	≥30	132 (62.9)	95.90±10.56		
Family type	Couple only	193 (91.9)	95.83±11.58	.422	.673
	With parents	17 (8.1)	94.59±12.55		
Education	≤High school	64 (30.5)	90.59±12.28	-4.423	<.001
	≥College	146 (69.5)	97.99±10.62		
Occupation	No	124 (59.0)	94.73±11.15	-1.512	.132
	Yes	86 (41.0)	97.19±12.21		
Family's income (10,000 won)	<200 ¹	27 (12.9)	90.63±13.44	6.382	.002 (1,2<3)
	200~300 ²	69 (32.9)	93.74±10.86		
	≥300 ³	114 (54.3)	98.15±11.11		
Religion	No	111 (52.9)	94.13±12.20	-2.138	.034
	Yes	99 (47.1)	97.54±10.74		
Obstetric factors					
Baby's age (month)	0~3 ¹	65 (31.0)	98.00±10.20	5.507	.001 (1,2>3)
	4~6 ²	78 (37.1)	97.77±11.32		
	7~9 ³	32 (15.2)	90.31±14.96		
	10~12 ⁴	35 (16.7)	91.94±8.95		
Baby's gender	Boy	101 (48.1)	94.79±11.95	-1.129	.260
	Girl	109 (51.9)	96.61±11.32		
Type of Delivery	Vaginal birth	137 (65.2)	95.09±11.11	-1.102	.272
	Cesearian birth	73 (34.8)	96.95±12.56		
Sanhujori facility	Used	146 (69.5)	96.38±10.64	-1.102	.273
	Not used	64 (30.5)	94.27±13.61		
Health problem	No	185 (88.1)	96.19±11.53	1.550	.123
	Yes	25 (11.9)	92.36±12.05		
Planned pregnancy	No	81 (38.6)	92.12±12.65	-3.507	.001
	Yes	129 (61.4)	98.00±10.38		
Antenatal Education	Did not receive	113 (53.8)	93.76±12.04	-2.691	.008
	Received	97 (46.2)	98.03±10.75		
Helper	No	24 (11.4)	87.62±11.22	-13.979	<.001
	Yes	186 (88.6)	96.77±11.29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는 1.100~2.804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았으므로, 자료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차항의 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값이 1.932로 2에 가까워 오차항간의 독립성이 만족되어 본 자료는 회귀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위하여 모성역할적응의 주요 탐색변인인 배우자 양육지지, 양육스트레스, 산후우울, 주관적 건강상태 외에도, 단변량 분석에서 모성역할적응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및 산과적 특성인 교육정도(준거집단: 고졸이하군), 경제상태(준거집단: 200만원 미만 군), 종교유무(준거집단: 없는 군), 아기연령(준거집단: 생후 3개월 이하군), 임신계획여부(준거집단: 계획 안한 군)와 임부의 산전교실참여여부(준거집단: 참여 안한 군), 조력자 유무(준거집단: 조력자 없음)의 변수를 가변수 처리한 후 독립변수로 함께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이러한 변수들이 포함된 회귀모델은 유의하였으며, 이들 변수에 의해 모성역할적응의 변동이 58.6% 설명되었다. 또한 배우자 양

육지지($t=6.542, p<.001$), 양육스트레스($t=-3.268, p=.001$), 산후우울($t=-2.384, p=.018$)이 모성역할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서 설명되었다 (Table 3).

고 찰

본 연구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속한 초산모의 모성역할적응과 배우자 양육지지, 양육스트레스, 산후우울, 주관적 건강상태 등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나아가 모성역할적응이라는 통합적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본 연구의 주요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초산모의 모성역할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우자 양육지지이었다. 이는 초산모가 인지한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 역할적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관련성을 설명하거나(Chung & Joung, 2011), 강력한 예측인자이자 중요한 중재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선행연구(Song et al., 2015b; Song et al., 2015c)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산모에 대한 배우자 지지는

Table 3. Factors Influencing on Maternal Role Adjustment

Variables	B	Std. Error	β	t	p
Constant	81.576	6.864		11.884	<.001
Spousal rearing support	.458	.070	.384	6.542	<.001
Childcare stress	-.192	.059	-.227	-3.268	.001
Postpartum depression	-.353	.148	-.161	-2.384	.018
Subjective health status	.272	.269	.051	1.011	.313
College graduation group	1.914	1.292	.076	1.481	.140
Monthly income 2 to 3 million won*	-1.237	1.856	-.050	-.666	.506
Monthly income more than 3 million won*	.091	1.797	.004	.051	.960
Having religion group	0.586	1.123	.025	0.522	.602
Baby age 4 to 6 month group [†]	1.368	1.347	.057	1.016	.311
Baby age 7 to 9 month group [†]	-1.786	1.779	-.055	-1.004	.317
Baby age 10 to 12 month group [†]	-1.523	1.729	-.049	-0.881	.380
Planned pregnancy group	2.003	1.157	.084	1.732	.085
Prenatal class participation group	0.912	1.199	.039	.760	.448
Having helper group	2.049	1.850	.056	1.107	.270

F=19.720 (p<.001), R²=.586

*Referent: Monthly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Referent: Baby age less than 3 month.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Kim et al., 2010; Song, 2009a), 초산모의 역할 긴장을 줄이고, 모성역할 자신감을 높임으로서(Chung & Joung, 2011; Kim et al., 2010), 모성역할적응 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과거에는 산후조력자 혹은 양육적 지지자로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친정어머니 였다면(Lee, 1995), 산업화와 핵가족화, 그리고 부모세대의 취업 증가 등에 따라 산후조력자로서 남편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여건(Song & Park, 2010)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특별히 본 연구의 대상군은 출산 후 1년까지의 초산모를 대상으로 하였고, 대략 70%의 초산모가 출생 후 3개월 이후의 시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출산 직후에 친정 부모님과 산후도우미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지지체제로 부터의 도움을 받는 시기를 지났다고 볼 수 있으며(Song & Park, 2010), 일상을 함께 하는 남편의 양육에 대한 지지와 조력이 더욱 더 중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초산모의 모성역할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도 중요한 지지체제로서 배우자의 양육지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마련이 중요하며, 향후 배우자를 포함한 산후 모성적응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초산모의 모성역할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로 중요한 예측요인은 양육스트레스로 분석되었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모성역할적응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Um (2014)이 영아기 산모의 양육스트레스 구조모형에 대한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모성역할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Ahn과 Kim (2015)의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와 모성역할적응 간에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즉, 양육스트레스는 다양한 측면으로 모성역할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양육 스타일이 부정적이고 자아 효능감이 낮아지며(Um, 2014), 어머니로서의 긍정적인 모성정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ae et al., 2011; Song et al., 2015c). 또한 양

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산후 우울의 정도도 높아질 수 있어(Song, 2009b), 더욱 더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과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한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모성적응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배우자 양육지지가 모성역할적응을 증진시키는 주요 예측변수임과 동시에 여러 선행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거나 완화하는 주요 변수로 설명됨을 고려할 때(Song, 2009a; Song et al., 2015b),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하여 배우자의 지지와 양육참여를 강화하는 방법이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산모의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Song, 2009a), 초산모를 대상으로 신생아 뿐 아니라 자녀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양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과 상담이 제공될 수 있는 통로와 전문가 지지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 다른 영향요인으로서, 산후우울이 초산모의 모성역할적응에 유의한 요인으로 설명되었으며, 산후우울 점수가 높을수록 초산모의 모성역할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는 동일 도구를 사용하여 산후우울과 모성역할적응 간에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으며, 우울한 군이 비우울군에 비해 모성역할적응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음을 보고하고 있는 Yoo (2008)의 선행연구와는 동일한 결과이지만, 한편 두 변수 간에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Chae (2005)의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대체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우울은 모성정체감을 감소시키고(Jung & Kim, 2014), 양육자신감을 감소시킴으로서(Kwon et al., 2006), 모성역할수행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설명된다. 따라서 모성역할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산후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서적 중재와 함께 산후우울 발생의 민감기에 산모의 모성정체감과 적응의 순조로운 이행을 돕기 위한 특별한 관심과 중재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산후우울의 평균점수

는 30점 만점에 8.1점이었으며, 이를 산후우울의 권고 절단점수에 따라 산후우울 분포로서 살펴보면(Cox et al., 1987), 30점 만점에서 우울 총점 8점미만의 정상군은 125명(59.5%), 9점에서 12점까지에 속하는 경증우울군은 39명(18.6%), 그리고 13점 이상의 중증우울군은 46명(21.9%)로 나타나, 총 85명(40.5%)의 산후우울 점수가 정상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본 연구의 대상자가 산후 1년 이내에 속한 어머니를 포함하여 산후 시기별 우울의 분포까지를 분석한 것은 아니나, 본 연구대상군의 총 40.5%의 어머니가 산후우울 점수의 정상범위를 벗어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모성전환의 시작인 출산 이후부터 모성역할적응의 안정기로서 볼 수 있는 산후 1년까지 산후우울의 변화양상과 각 시기별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우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모성역할적응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는 있었으나,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지는 않았다. 이는 산모가 인지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산후우울이 낮아지고, 나아가 모성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설명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이긴 하나(Jung & Kim, 2014), 한편 주관적 건강상태는 모성역할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거나 산후우울의 증가에 기여하는 등의 경로를 거쳐 모성역할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의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모성역할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후 어떠한 경로를 거쳐 모성역할적응에 기여하는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경로분석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성역할적응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단변량 분석결과에서, 교육수준, 경제상태, 종교유무, 아기연령, 계획임신 여부, 산전교실 참여여부와 양육 조력자 유무 등이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이는 초산모의 모성역할적응을 측정할 다른 선행 연구(Chae, 2005; Lee, 2015)와 유사한 결과이며,

Kim 등(2005)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아기를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신생아 지각과 어머니로서의 자기 인식인 모성정체성이 긍정적이었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산과적 특성에 따른 모성역할적응 정도는 아기연령(생후 3개월 이하군과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이하군), 임신계획여부(계획한 그룹)와 임부의 산전교실 참여(교육에 참여한 그룹), 산후 조력자 여부(조력자가 있는 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흔히 초산모는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모성역할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Mercer, 1985), 특별히 계획된 임신을 하고 출산 전에 산전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심리적, 실제적으로 어머니로의 전환과정을 준비하게 되어 모성역할적응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산전교육을 참여한 그룹에서 출산 후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고(Kim et al., 2005), 모성역할 자신감이나 모성정체감 같은 모성역할적응의 중심개념에서도 유의한 효과를 보인 것(Kim & Kim, 2015)과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임신을 계획하고, 산전 임부교실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임신기간 내내 자연스럽게 어머니로서의 심리적, 실제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이때 남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산전교육 시간이나 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산후 조력자가 있을 때 모성역할적응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Kim 등(2005)의 연구에서 배우자나 주변 사람의 지지를 통해 초산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 모성역할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

그러나 이상에서 설명한 여러 일반적, 산과적 특성들은 단변량 분석에서는 모성역할적응에 차이를 보이는 유의한 변수였지만, 회귀분석을 했을 때는 유의한 예측변수로서 설명되진 않았다. 이는 Lee (2015)의 산육 초기 초산모를 대상으로 모성역할적응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경제상태, 산전교육 참여 유무가 회귀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임신 전의 산모가 계획한 마음가짐이나 산전교육의 내용 등이 산육기 초기의 산모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겠

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와 같이 산후 1년 이내의 초산 모에게는 배우자 양육지지나, 양육스트레스, 산후우울과 같은 주요 변수에 비해 상대적 영향력이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출산 후 1년 이내 초산모(아기 평균 연령 5.51개월)의 모성역할적응 점수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문항 평균점수로 나타내면 4점 만점에 2.7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 후 4주 이내의 초산모의 모성역할적응 정도를 측정된 Lee (2015)의 연구에서 보고된 2.62점과 Chae (2005)의 2.80점과 유사한 정도로, 그 차이가 미미하였다. 또한 동일 시기인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를 대상으로 한 Yoo (2008)의 연구 결과인 2.54점 보다는 높았고, 산후 24개월의 산모를 대상으로 한 Ahn과 Kim (2015)의 연구인 3.11점 보다는 낮은 정도이다. 물론 연구마다 연구대상군에서 차이가 있어 일관성 있는 결과보고가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특별히 모성역할적응이 소극기, 적극기, 상호적응기 등의 단계적으로 발전해가고(Rubin, 1967), 출산 후 개월 수에 따라 변화를 거쳐 안정기에 이른다는 입장을 고려할 때(Mercer, 1985; Park, 1991), 본 연구와 선행연구가 대상군의 개월 수에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육기 산모와 큰 점수의 차이가 없거나, 또 유사한 대상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에서 차이를 보이는 등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성역할적응 측정도구가 모성역할적응의 핵심속성을 민감하게 측정하고 있지 못하거나 안정성이 부족한 도구일 가능성도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향후 모성역할적응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모성역할적응의 변화를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모성역할적응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경기도와 충남지역 2개 지역에 속한 초산 모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초산 모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역할적응과 적응에서 중요한 시점으로 설명되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초산모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한 점과, 기존의 모성역할적응이라는 통합적 개념의 종속변수를 측정된 선행연구가 부족한 여건

에서, Sheehan (1981)이 개발한 모성역할적응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배우자 양육지지와 양육스트레스, 산후우울 등이 모성역할적응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설명된 것과, 그 중 배우자 양육지지는 모성역할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일 뿐 아니라,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완충함으로써 산후우울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서 설명된 것을 근거로, 향후 초산모를 위한 배우자 양육지지를 활성화 하는 초산모를 위한 모성적응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제언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출산 후 1년 이내 초산모의 모성역할적응 정도가 어떠한지를 Sheehan (1981)의 모성역할적응도구로 측정하고, 이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모성역할적응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배우자 양육지지, 양육스트레스, 산후우울이 모성역할적응의 예측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변수들에 의해 모성역할적응의 변동이 58.6% 설명되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산모의 모성역할적응에 가장 중요한 중재요인인 배우자 양육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산후 모성적응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평가의 연구를 제언하며, 나아가 배우자 양육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산후우울의 감소에 기여함으로써, 모성역할적응 증진에 기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경로분석연구나 공변량 구조분석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Abidin RR.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Unpublished scale. 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 VA. 1988.
- Ahn SH, Kim YM. Association of parenting stresses, maternal role adjustment, and types of feeding during hospital stays at birth to breastfeeding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5;21(4):262-71.

- Barlow C, Cairns K. Mothering as a psychological experience. *Canadian Journal of Counseling* 1997; 31(3):232-7.
- Chae HJ, Song JE, Kim S. Predictors of maternal identity of Korean primipara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1;41(6):733-41.
- Chae YS. Adaptation of maternal roles and postpartum depression of primiparas during early postpartum period.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Seoul, 2005.
- Chung SS, Joung KH. Comparative study on predictors of maternal confidence between primipara and multipara.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1;17(3):181-9.
- Cox J, Holden J, Sagovsky R. Detection of postnatal depression : Development of 10 item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87;150:782-6.
- Faul F, Erdfelder E, Lang AG, Buchner A.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2007;39(2):175-91.
- Jung YT, Kim HW. Factors associated with postpartum depression and its influence on maternal identity.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4;20(1):29-37.
- Ko HJ. The Change and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Role Strain and Husband's Support in First-time Mothers with regard to their Employment Statu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998;4(1):5-28.
- Kim DH. A study of effect on parenting efficacy of immigrant women for marriag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culturation. Ewha Women's Univ. Doctoral Dissertation. Seoul, 2008.
- Kim HS, Oh KS, Shin YH, Kim TI, Yoo HN, Sim MK, Chung KH.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stress in primipara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05; 11(3):290-300.
- Kim KW, Doh HS, Kim SW, Rhee SH.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mployment, maternal job characteristics, spous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2010;31(5):101-13.
- Kim KA, Kim JS. The Development of a Maternal Role Education Program for Married Immigrant Women-Focusing Mothers of Infant and Toddler.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15;48:5-28.
- Kim AR, Tak YR. Maternal Role Development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Graduate Mothers of Premature Infant.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2015;12(4):308-20.
- Kwon MK, Kim HW, Kim NS, Jeong JA. Postpartum depression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parenting stress, and infant temperament in mothers of young infa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06;12(3):314-21.
- Lee E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to the Maternal Role in First-time Mothers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995;1(1):23-34.
- Lee JL.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ostpartum depression of postnatal women, Sung Shin Women Univ. master's thesis. Seoul, 2013.
- Lee HS. The influence factors on the maternal role adjustment of primipara in puerperium. MokPo University, master's thesis. MokPo, 2015.
- Mercer RT. The process of maternal role attainment over the first year. *Nursing Research* 1985;34(4):198-204.
- Mercer RT. Becoming a mother versus maternal role attainment.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004; 36:226-32.
- Mercer RT, Walker LO. A review of nursing interventions to foster becoming a mother.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2006; 35:568-82.
- Meleis AI, Sawyer LM, Im EO, Hilfinger Messias DK, Schumacher K. Experiencing transitions: An emerging middle-range theory. *Advances in Nursing Science* 2000;23(1):12-28.
- Park YS. Transition to motherhood of primipara in postpartum period, Seoul Univ. Doctorial dissertation, Seoul, 1991.
- Rubin R. Attainment of the maternal role, Part II. Models and referents. *Nursing Research* 1967;16(4):342-6.
- Seo YM. A phenomenological study on women's experience of motherhood through pregnancy to early rearing of their first baby; Focused on the second birth plan. University of Seoul, master's thesis. Seoul, 2011.
- Sheehan F. Assessing postpartum adjustment: A pilot study. *Journal of Gynecological Nursing* 1981;10

- (1):19-22.
- Song JE. Factors related to the childcare stress among primiparous women who delivered at women's health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09a;13(2):158-70.
- Song JE. Influencing Factors of Postpartum depression between 4 to 6 Weeks after childbirth in the postpartum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9b;15(3):216-23.
- Song JE, Park BL. The Changing pattern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and maternal adjustment between primiparas who used and those who did not use Sanhujori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0;40(4):503-14.
- Song JE, Ahn JA. Effect of intervention programs for improving maternal adaptation in Korea: Systematic Review.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3;19(3):129-41.
- Song JE, Chae HJ, Park BL. Experiences of Sanhujori facility use among the first time mothers by the focus group interview.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5a;21(3):184-96.
- Song JE, Kim T, Ahn JA. A systematic review of psychosocial interventions for women with postpartum stress.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2015b;44:183-92.
- Song JE, Roh EH, Park SM. Systematic review of quantitative research related to maternal adaptation among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5c;21(1):55-70.
- Stewart S, Pearson S, Luke CG, Horowitz JD. Effects of a home-based intervention on unplanned readmissions and out-of-hospital death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1998;46(2):174-80.
- Um SJ.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mothers' self-efficacy and child-rearing style on the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After-School Child Education* 2014;11(1):1-12.
- Yeo JH. Postpartum depression and its predictors at six months postpartum.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6;12(4):355-62.
- Yoo DS. Infant mother's postpartum depression and maternal role adjustment. Seoul Univ. master's thesis, Seoul, 2008.